

경제동향

■ 요약

■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■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■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■ 물가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
곽지원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)

■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■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■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이소은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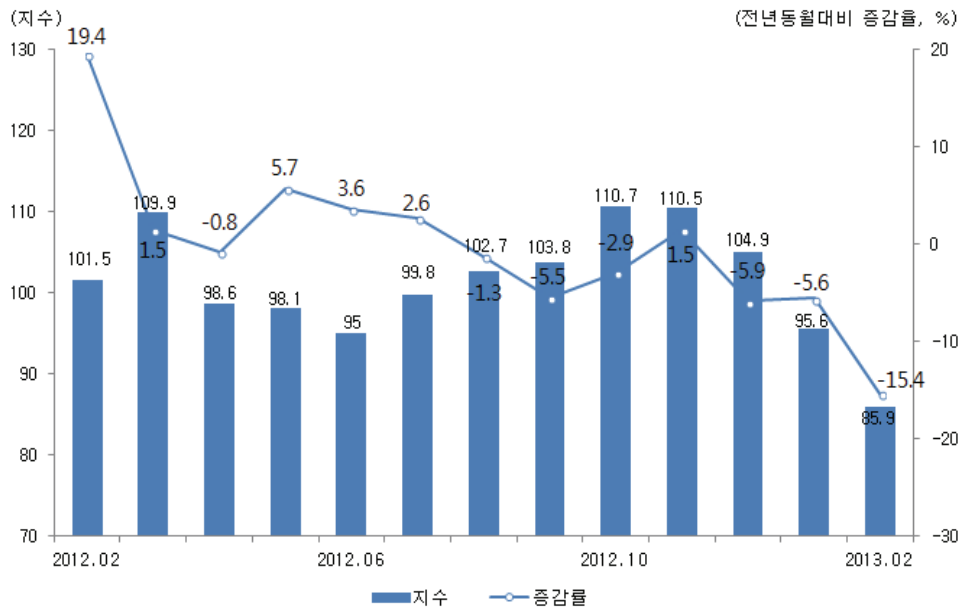
소비	<p>서울의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로 지난달 보였던 큰 감소세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</p> <p>2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157억원으로 전국(2조2,546억원)의 45.1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981억원으로 전국(3조6,994억원)의 29.7%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전국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8.2% 증가한 대형마트가 1위를 차지했다.</p>
고용	<p>서울의 2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, 남·녀 취업자 수 증가, 고용률 하락, 실업률이 하락하였다.</p> <p>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, 청년취업자는 3개월 연속 감소폭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.</p>
물가	<p>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.7% 상승으로 5개월 연속 물가지수 증감률의 상승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. 세부적으로 보면,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1.2%,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3.6% 상승하며 평소보다 작은 상승폭을 보였다. 신선식품은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 등과 같은 대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.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0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1.4%p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
부동산	<p>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6개월 연속 상승하였다. 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,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,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.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강남구와 금천구,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.</p>

| 생 · 산 |

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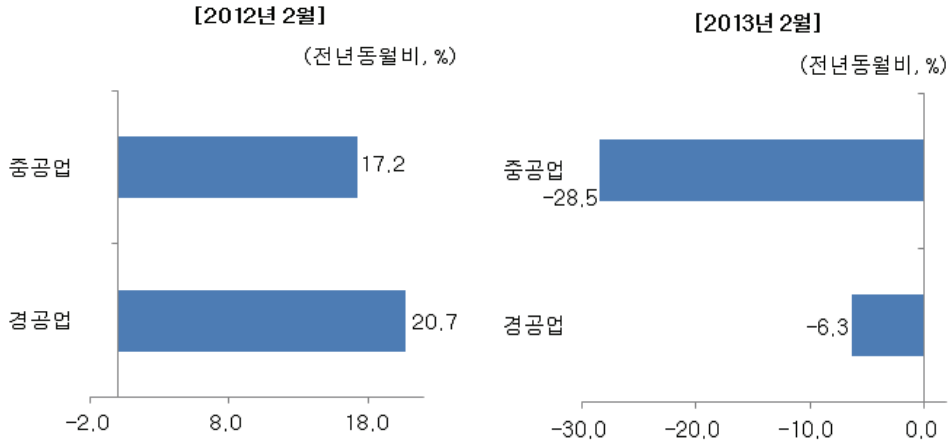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2월 산업생산지수 2012년 2월에 비해 큰 폭 하락세

- 서울의 2013년 2월 산업생산지수 85.9(2005=100)로 전년동월대비 15.4% 감소
-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8.5% 감소, 경공업부문은 6.3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(23.6%), 섬유제품(13.5%), 종이제품(12.1%) 증가, 의료정밀과학(-38.1%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37.6%), 기계장비(-36.3%) 각각 감소
-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산업생산지수 값을 기록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산업생산(중공업, 경공업) 증감률

■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은 96.0(2010=100)으로 전년동월대비 9.3% 감소
- 제조업 생산은 95.1(2010=100)이며,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의료정밀광학(1.0%), 화학제품(0.3%)은 증가하였으나, 기계장비(-20.7%), 자동차(-16.5%) 등에서 각각 감소하여 총 9.8% 감소
-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보건·사회복지(5.0%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·정보(3.6%) 등에서 증가하였으나, 숙박·음식점(-4.7%), 금융·보험(-1.4%) 등이 감소하여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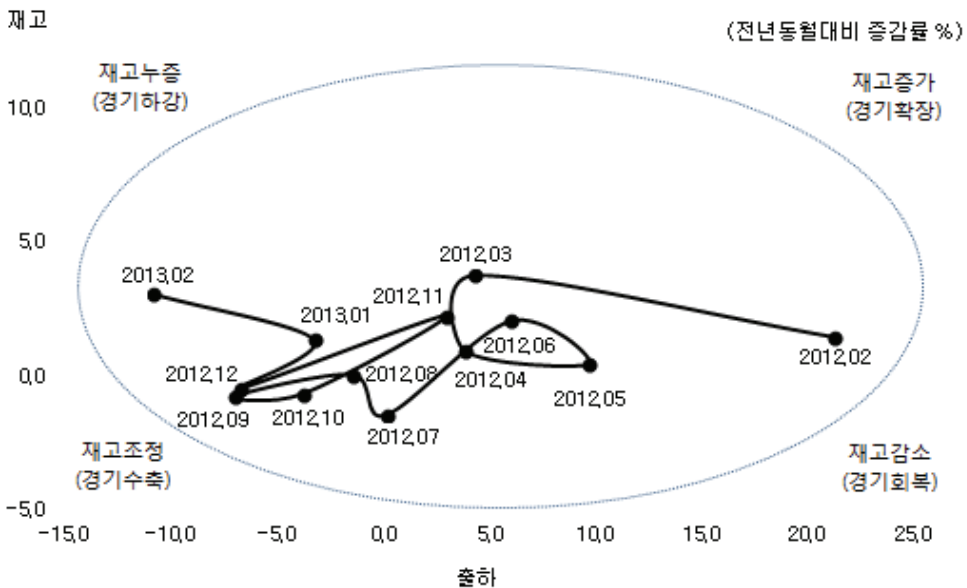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서울의 2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

- 서울의 2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,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
 -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04.1(2010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3.0% 증가
 - 서울의 2월 출하지수는 92.3(2010=100.0)으로 전년동월대비 11.1% 감소
 - 출하 감소,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중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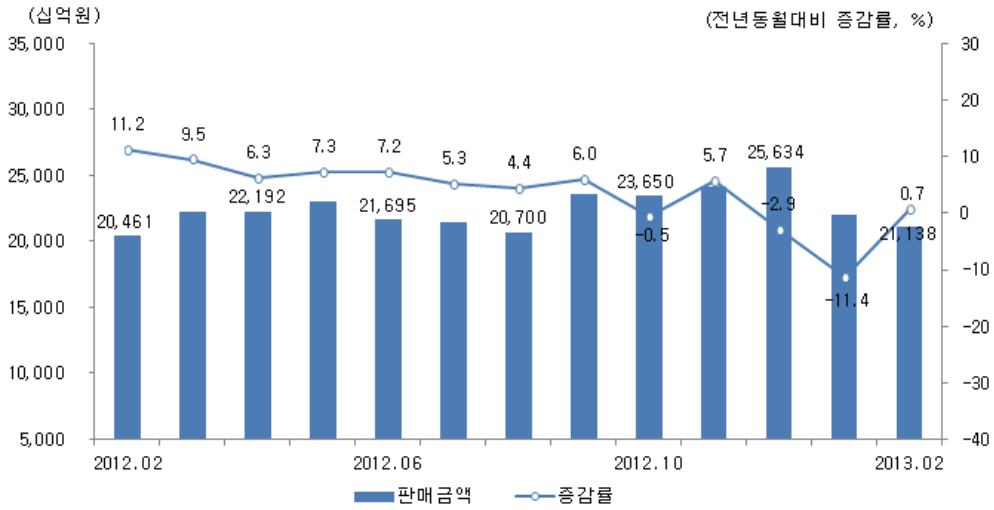
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판매액 대형마트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

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
 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,138억원으로 전국(5조9,540억원)의 35.5%를 차지
 - 백화점 판매액은 1조157억원으로 전국(2조2,546억원)의 45.1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981억원으로 전국(3조6,994억원)의 29.7%를 차지
 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.0으로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
 -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, 대형마트 판매는 3.7% 증가

-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
 -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.6으로 전년동월대비 5.5% 증가
 -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.4%, 대형마트는 8.2% 각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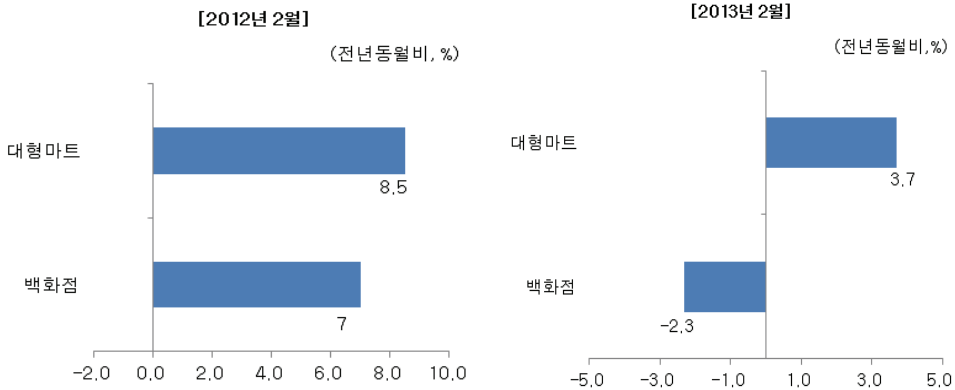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2월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대형마트(8.2%)가 1위를 차지
 - 전국의 소매판매액(경상금액)은 27조 3,7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.8% 증가
 - 전국의 2월 소매판매액지수를 재별로 보면, 전년동월대비 승용차 등 내구재(-1.7%)는 감소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(3.4%),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(2.6%)가 늘어 1.8% 증가
 - 소매업태별로 보면, 전년동월대비 슈퍼마켓, 편의점, 대형마트, 백화점 등은 증가, 승용차·연료소매점, 무점포소매*는 감소

1) 인터넷쇼핑, 홈쇼핑, 방문 및 배달 소매점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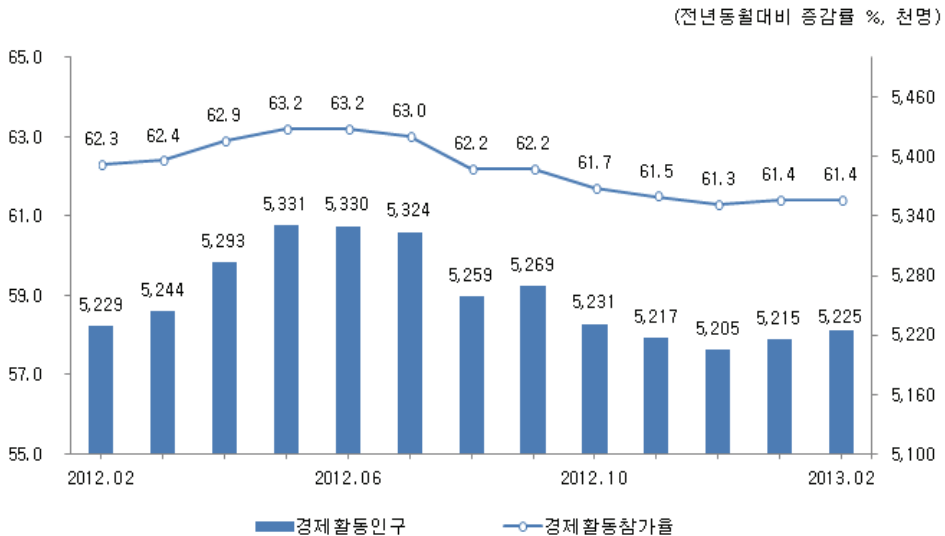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| 경 · 제 · 활 · 동 · 인 · 구 |

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2개월 연속 61.4%로 보합세

- 서울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.9%p 하락
 - 서울의 2월 15세 이상 인구는 850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1천명(1.3%)이 증가
 - 경제활동인구는 522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(-0.9%)이 하락
 - 경제활동참가율은 61.4%로 전년동월대비 0.9%p 하락
 - 비경제활동인구는 32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6천명(3.6%)이 증가

- 전국의 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와 보합세
 - 전국의 2월 15세 이상 인구는 4,19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7천명(1.3%) 증가
 - 경제활동인구는 2,497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8천명(0.6%) 증가
 - 경제활동참가율은 59.6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
 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,46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9천명(0.4%) 증가하였으며, 여자는 1,029만8천명으로 8만9천명(0.9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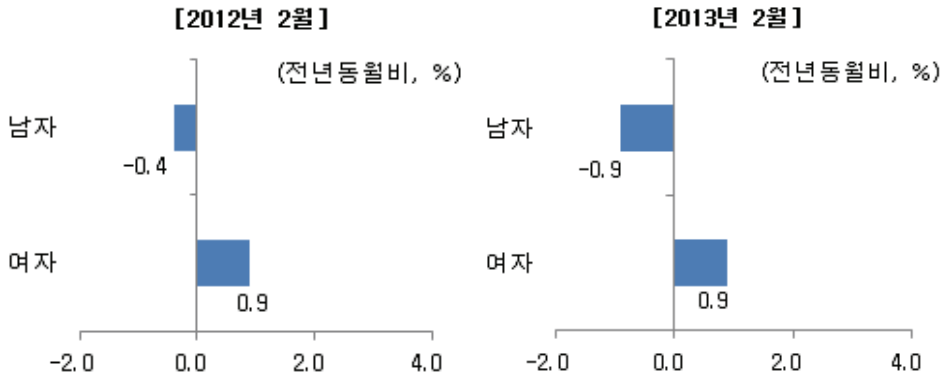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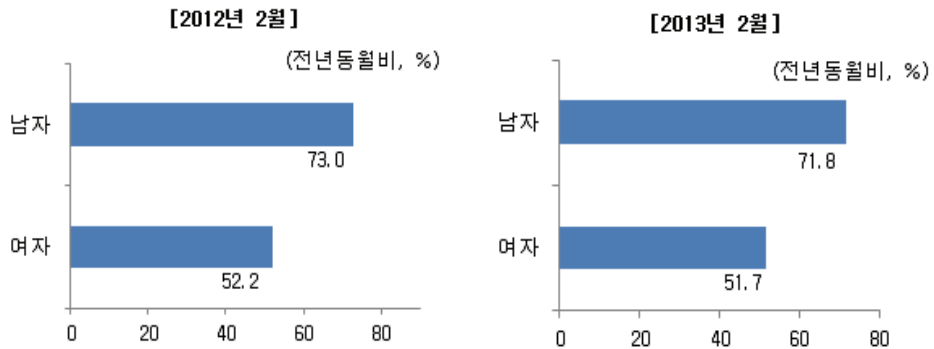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, 여자 증가

-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94만2천명, 여자는 22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.9%감소, 여자는 0.9% 증가
-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1.8%, 여자는 51.7%로 전년동월대비 남자, 여자 각각 1.2p, 0.5%p 하락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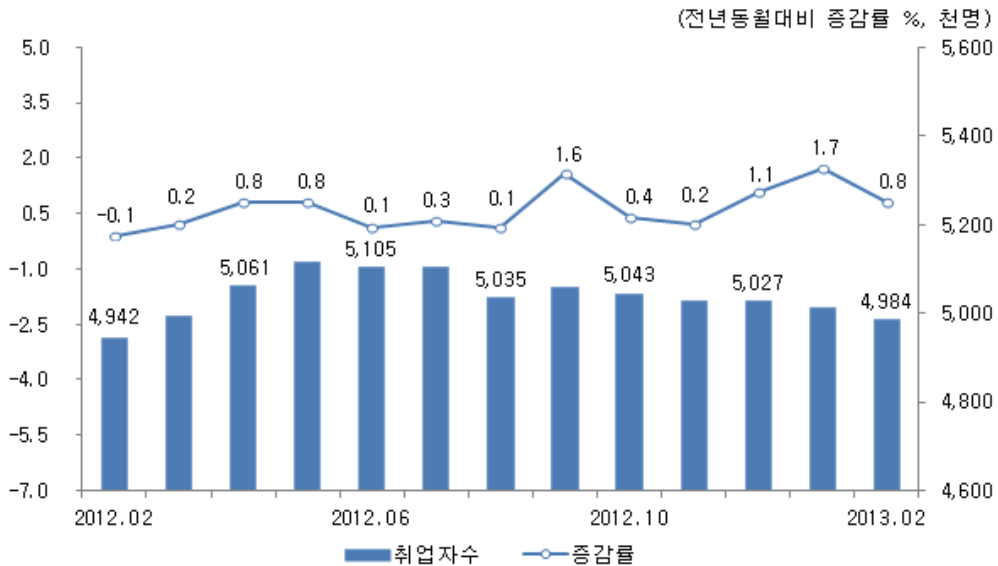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

| 취·업·자 |

서울의 2월 취업자 수는 여성 취업자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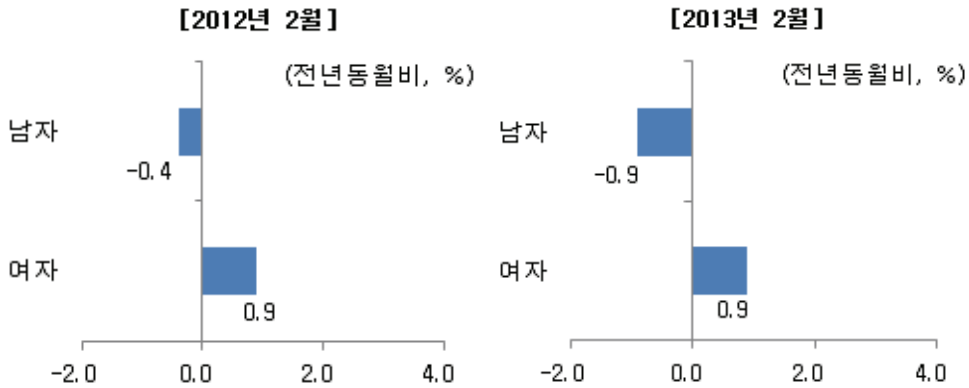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2월 남,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
 - 서울의 2월 취업자는 49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2천명(0.8%)이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79만8천명, 여자는 21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으로 보합, 여자는 4만1천명(1.9%) 증가

- 전국의 2월 남,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
 - 전국의 2월 취업자는 2,39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1천명(0.8%) 증가
 - 성별로 보면 남자는 1,40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7천명(0.3%), 여자는 991만9천명으로 15만4천명(1.6%)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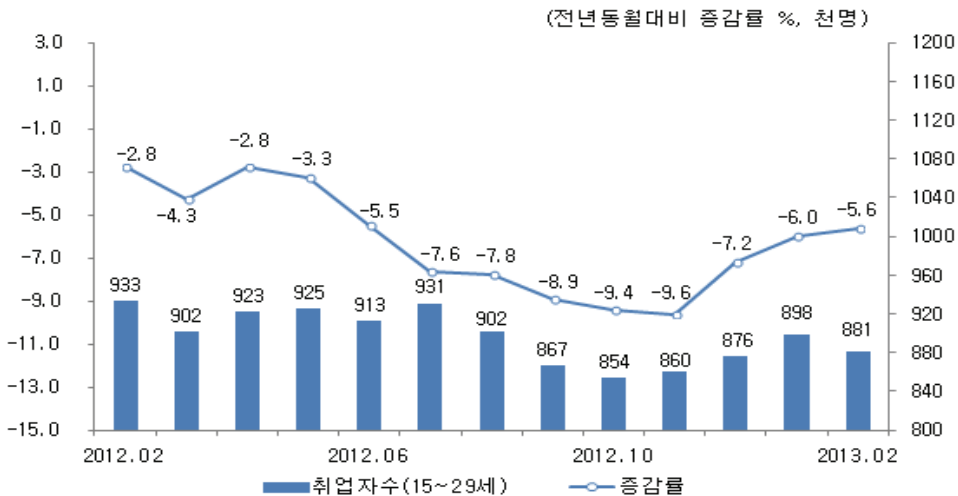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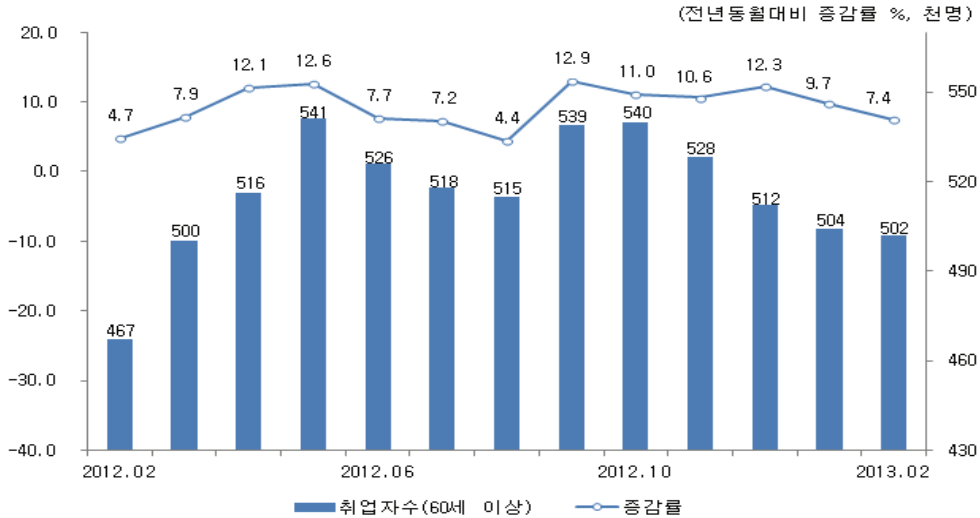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

- 서울의 2월 청년층(15세~29세) 여전히 감소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꾸준히 증가
 - 서울의 2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.6% 감소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
 - 서울의 2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.4%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
 -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,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(15세~29세)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(60세 이상) 추이

■ 산업별로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각각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(-32.7%), 제조업 6만1천명(-12.0%), 건설업 2만3천명(-6.6%) 등은 각각 감소
- 반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11만5천명(5.9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1만5천명(1.8%)은 각각 증가

■ 직업별로 사무, 관리자·전문가 각각 증가

-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만5천명(4.4%), 관리자·전문가 4만9천명(3.5%)이 각각 증가
- 반면,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(-32.8%),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만명(-3.7%),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(-0.1%)은 각각 감소

■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, 상용·일용직 임금근로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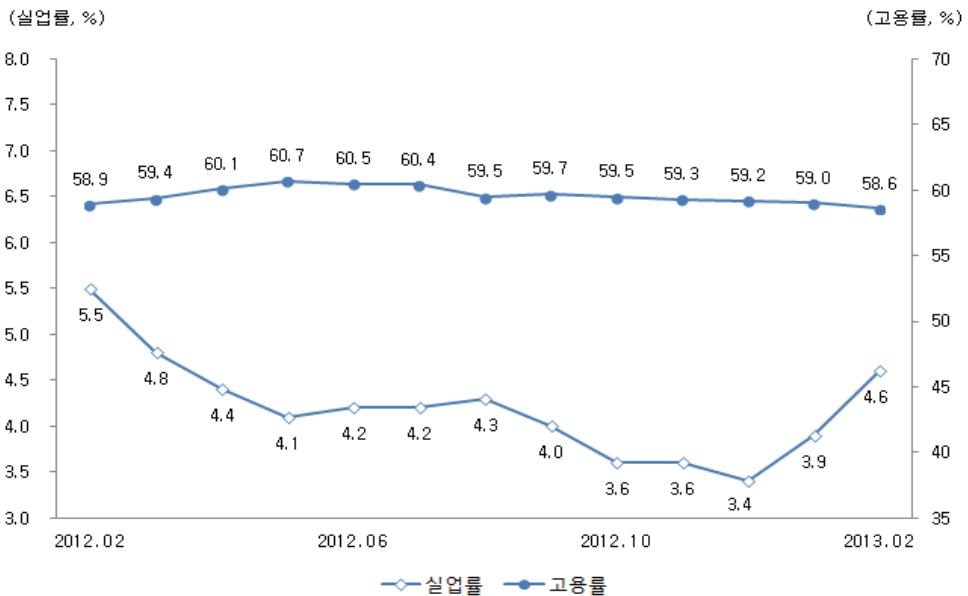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3천명(-4.5%), 무급가족종사자는 9천명(-5.7%), 임시근로자는 3만2천명(-2.8%)이 각각 감소
-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2만명(5.2%), 일용근로자는 6천명(1.6%)이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3만2천명(-2.8%)이 감소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서울의 2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고용률 모두 하락세

- 서울의 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, 전국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8.6%로 전년동월대비 0.3%p 감소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8.3%로 전년동월대비 0.6%p 감소, 여자는 49.5%로 보합
 - 2013년 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57.2%)에 비해 1.4%p 높은 수준

- 서울의 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, 전국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2월 실업자는 2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(-16.0%)이 감소
 - 실업률은 4.6%로 전년동월대비 0.9%p 하락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9%로 전년동월대비 0.8%p, 여자는 4.3%로 0.9%p 각각 하락
 - 2013년 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4.0%)에 비하여 0.6%p 높은 수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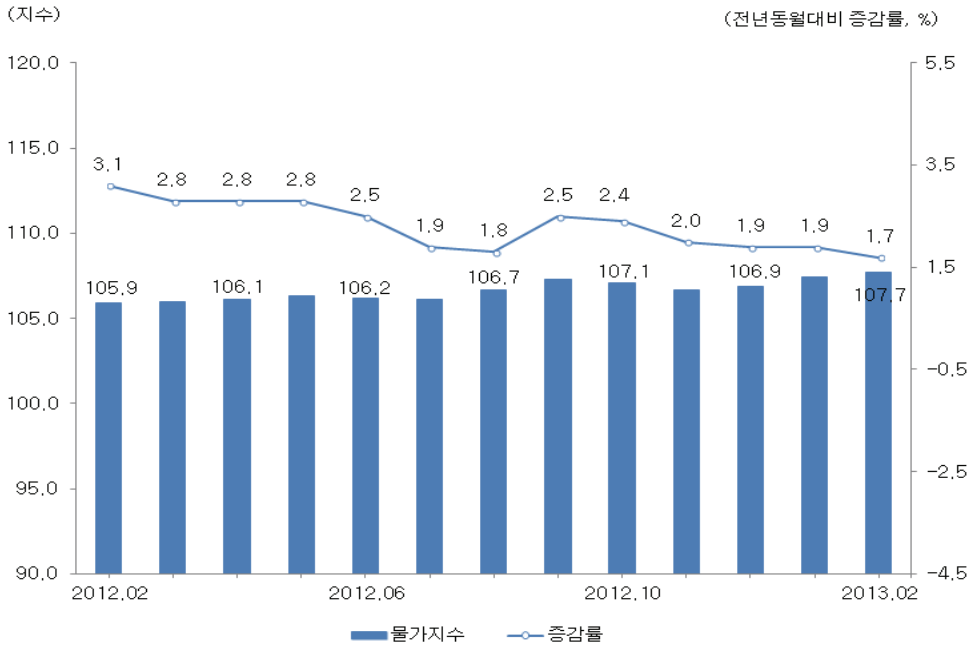
| 물 · 가 |

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하락세

-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
 - 2013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.7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.7% 상승
 -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전기·수도·가스(4.2%) 등 모두 상승
 -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.5% 상승, 그 중 농축수산물은 1.2%, 공업제품은 1.0% 각각 상승
 -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.8% 상승, 그 중 집세는 3.1%, 공공서비스 2.3% , 개인서비스 1.0% 각각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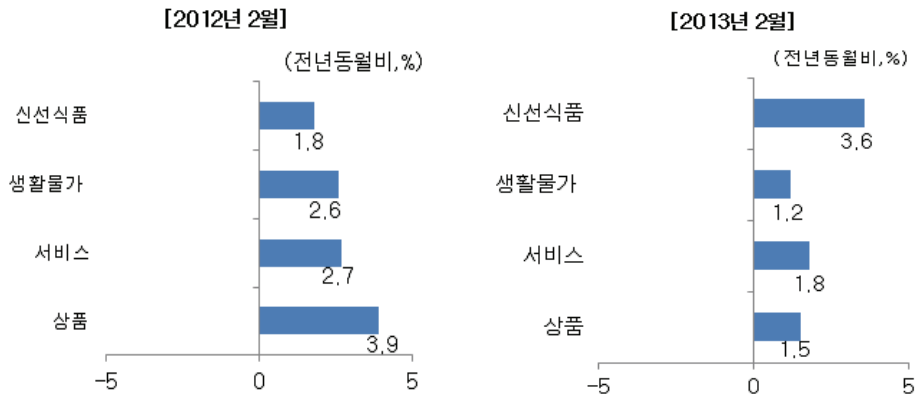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2월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
 -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.2% 상승
 - 생선류, 채소류,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.6% 상승

-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
 - 전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.6(2010년=100)으로 전년동월대비 0.3% 상승
 -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, 충북은 0.5% 상승, 경기, 강원, 경북, 경남, 제주도는 0.4% 상승, 나머지 10개 시도는 0.2~0.3%씩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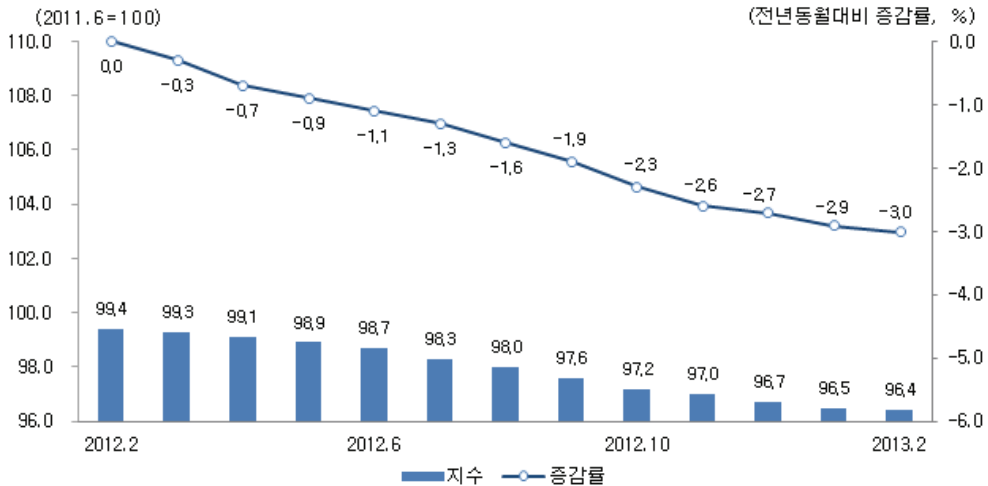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 (2005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

-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
 -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하락
 -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,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.3%, 0.1% 하락
-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 매수심리 위축세가 지속되며 8개월 연속 하락
 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새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확대와 장기적 매매시장 침체로 전월대비 0.1% 하락
 -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.2%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전월대비 0.1% 상승,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보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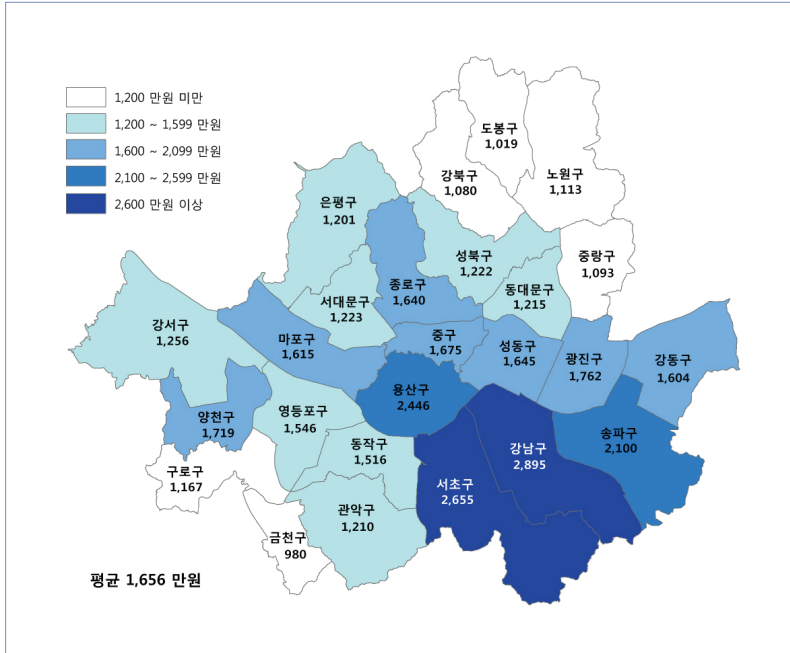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원구, 도봉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하락**
 - 노원구는 주거기반시설이 보완된 별내신도시로의 이동을 위해 기존 단지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가 전무하여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0.3% 하락
 - 도봉구는 매물 물량이 적체되고 급매물 조차 거래가 한산해지며 전월대비 0.3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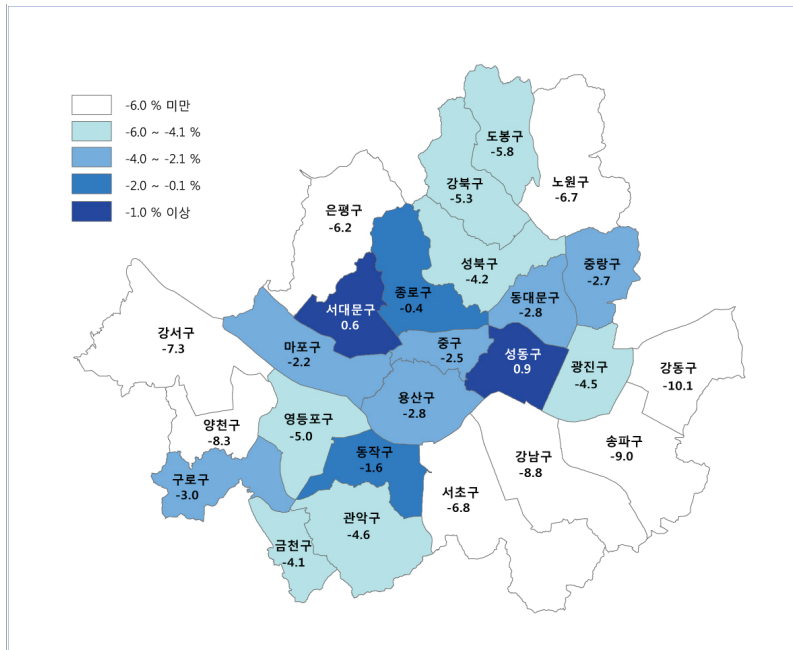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금천구, 서초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.2% 하락**
 - 금천구는 거래가 전무하여 급매물 해소에도 어려움을 보이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.5% 하락
 - 서초구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전월대비 0.4% 하락

- **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**
 -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55.9만원으로 전월대비(1661.4만원)대비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3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(2,895만원), 서초구(2,655만원), 용산구(2,446만원), 송파구(2,100만원), 광진구(1,762만원), 양천구(1,719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980만원), 도봉구(1,019만원), 강북구(1,080만원), 중랑구(1,093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2월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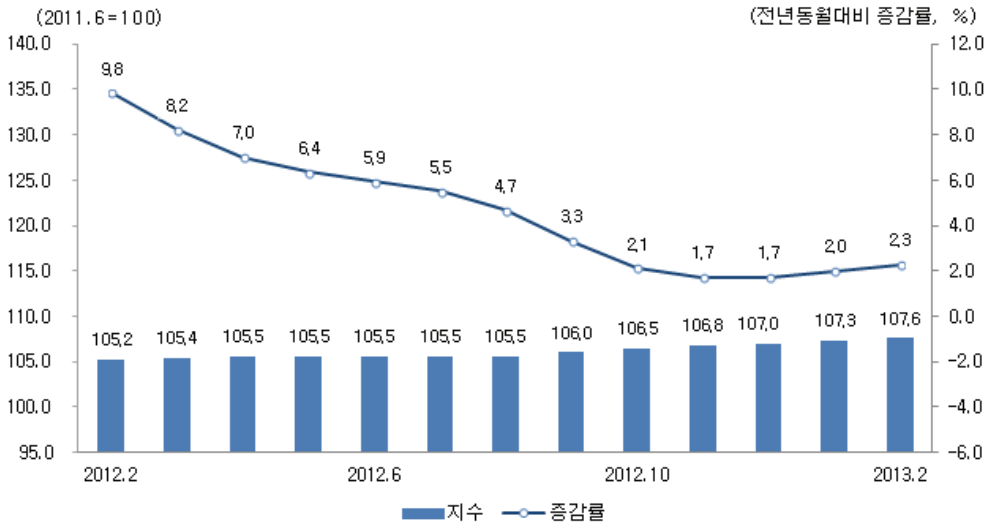
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6개월 연속 상승

■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

-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.3% 상승
-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.1%, 아파트는 0.4% 상승

■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

-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경기부진으로 전세 재계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, 봄 이사철 이동수요도 증가하며,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.3% 상승
-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월대비 0.3% 상승하였고 기타지방은 0.2%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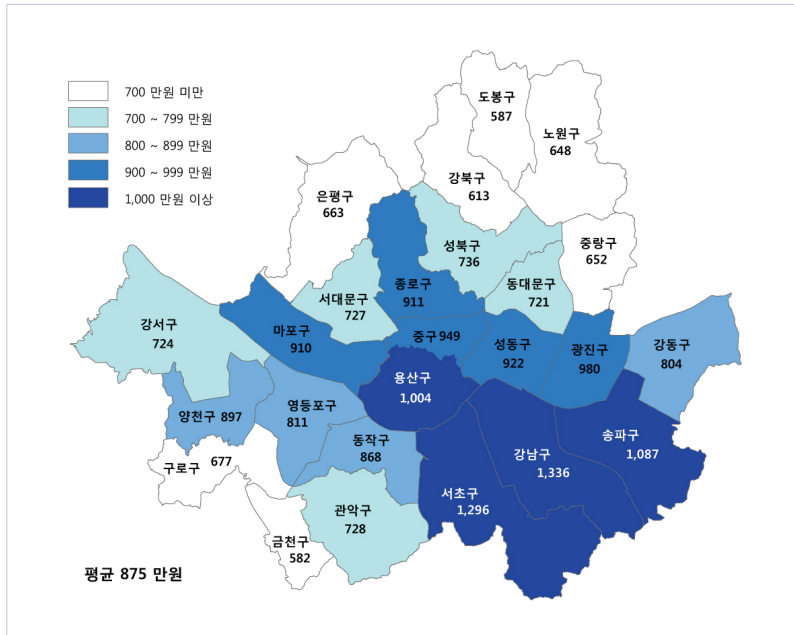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**강북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대문구, 도봉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.2% 상승**
 - 서대문구는 도심업무지역과의 접근 편리성으로 명동, 광화문 및 상암 DMC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와 돈의문뉴타운 이주수요, 인근 학교의 학군수요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.6%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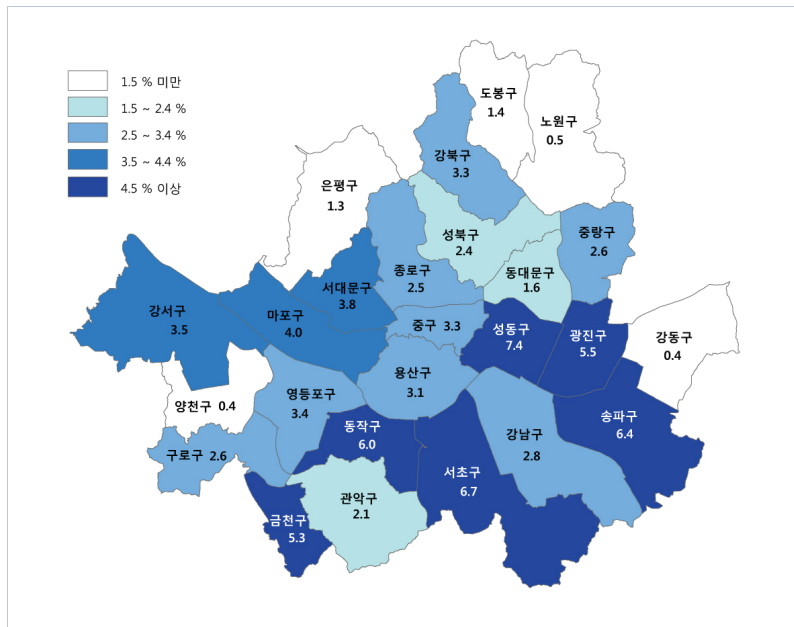
- **강남지역 역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구와 금천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.4% 상승**
 - 강남구는 봄 이사철 수요와 우수학군으로 배정받기 위한 학군수요, 인근 개나리 6차 재건축 이주수요,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며 전월대비 0.9% 상승

- **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**
 -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74.7만원으로 전월대비(869.9만원) 소폭 증가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, 강남구(1,336만원), 서초구(1,296만원), 송파구(1,087만원), 용산구(1,004만원), 광진구(980만원), 중구(949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(582만원), 도봉구(587만원), 강북구(613만원), 노원구(648만원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자료 : 부동산 114

<그림>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



자료 : 부동산 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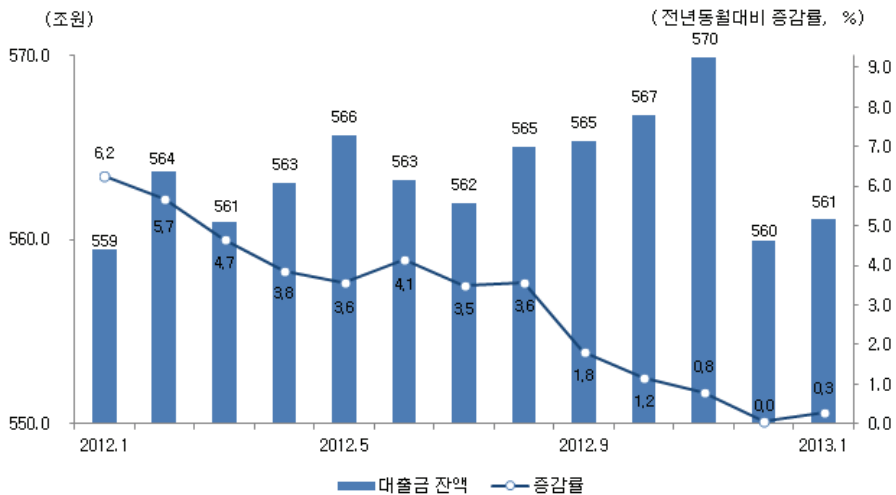
<그림>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서울의 1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
 - 1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1조 807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1,718억원(0.21%)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2조 4,136억원 규모, 비예금은행은 108조 6,671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.9% 감소, 5.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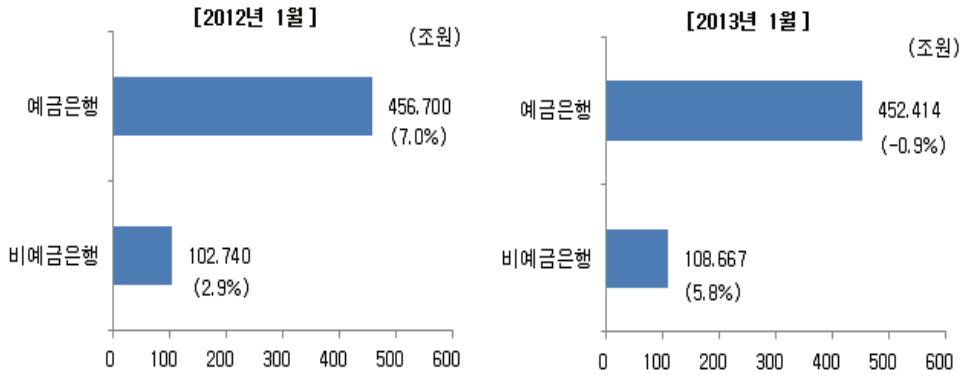
- 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1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,451조 2,24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8,487억원(0.13%)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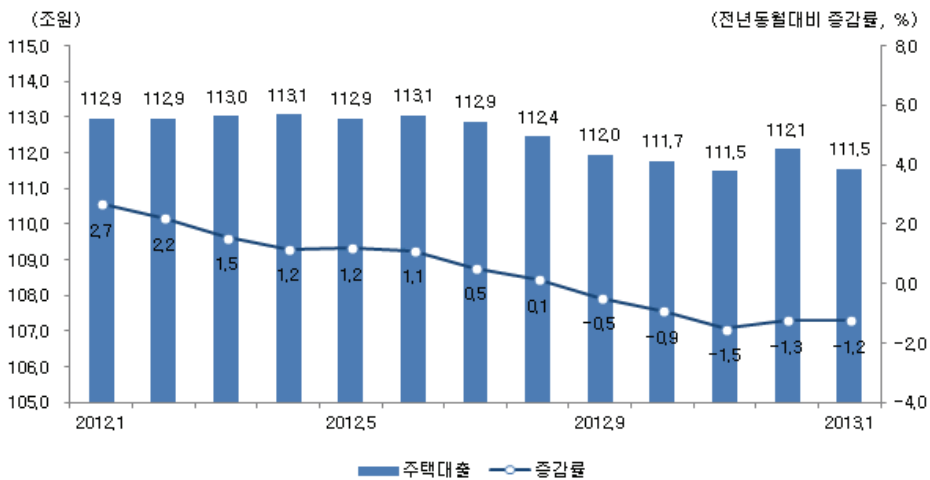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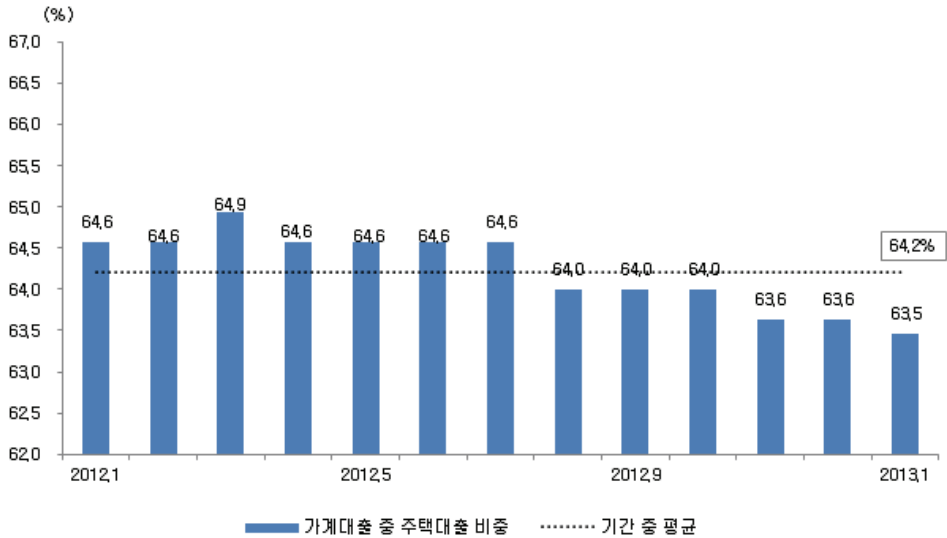
-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823억원으로 전월대비 9,889억원(0.6%) 소폭 감소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5,409억원(64.0%)으로 전년동월대비 1.2% 감소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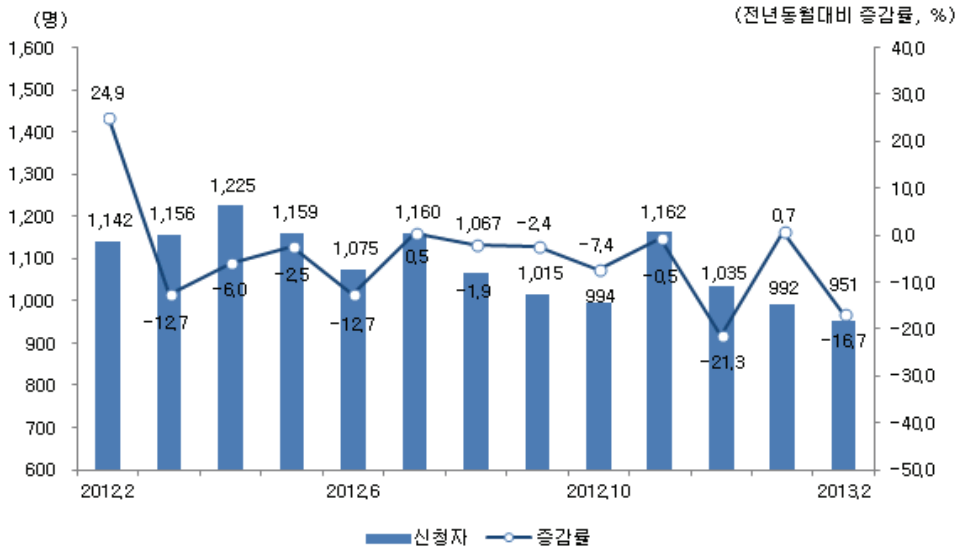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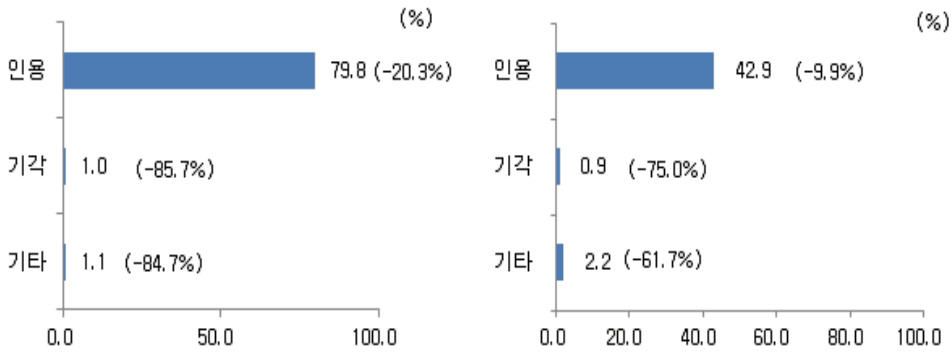
■ 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

-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951명으로 전월대비 4.1% 감소, 전년동월대비 16.7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.0%로 전년동월대비 85.7%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0.9%로 전년동월대비 75.0% 감소

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

주 :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,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,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대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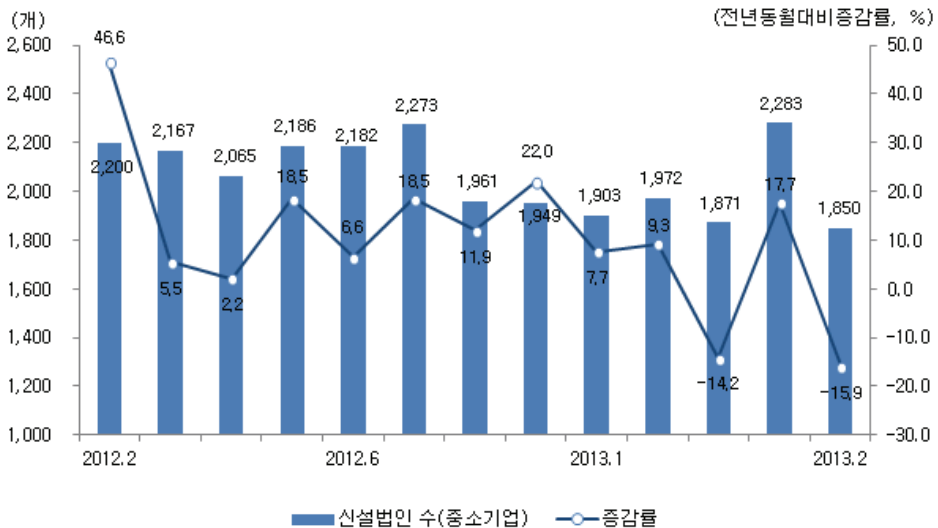
<그림> 2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

<그림> 2월 면책 처리현황

| 신 · 설 · 및 · 부 · 도 · 법 · 인 · 동 · 향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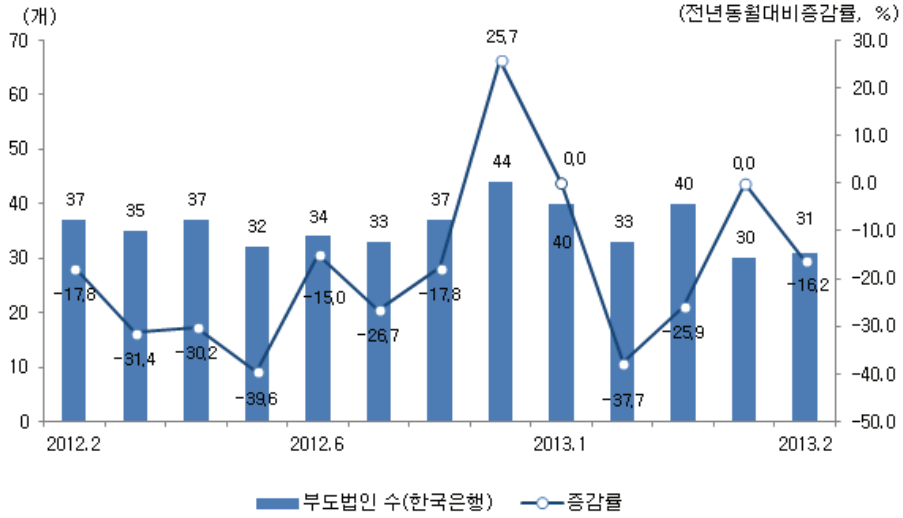
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
 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,850개로 전월대비 19.0%(433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15.9%(350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29.2%(34개) 감소하였고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29.2%(95개), 16.4%(297개) 감소
- 서울의 2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1개로 전월대비 3.3%(1개)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6.2%(6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건설업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보합수준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66.7%(4개) 증가, 11.8%(2개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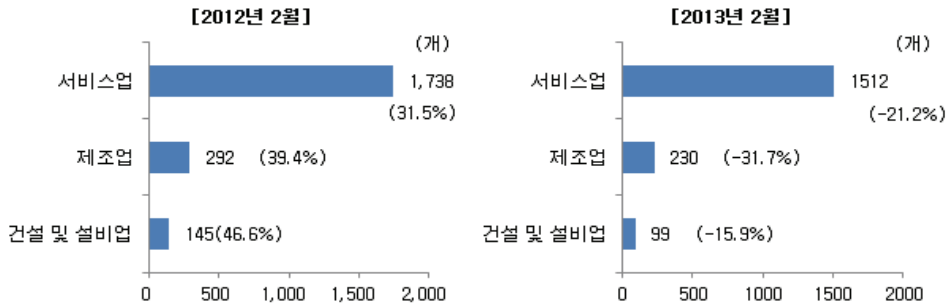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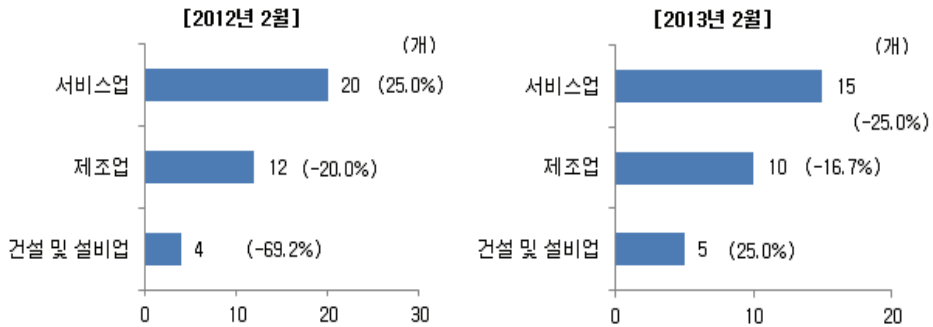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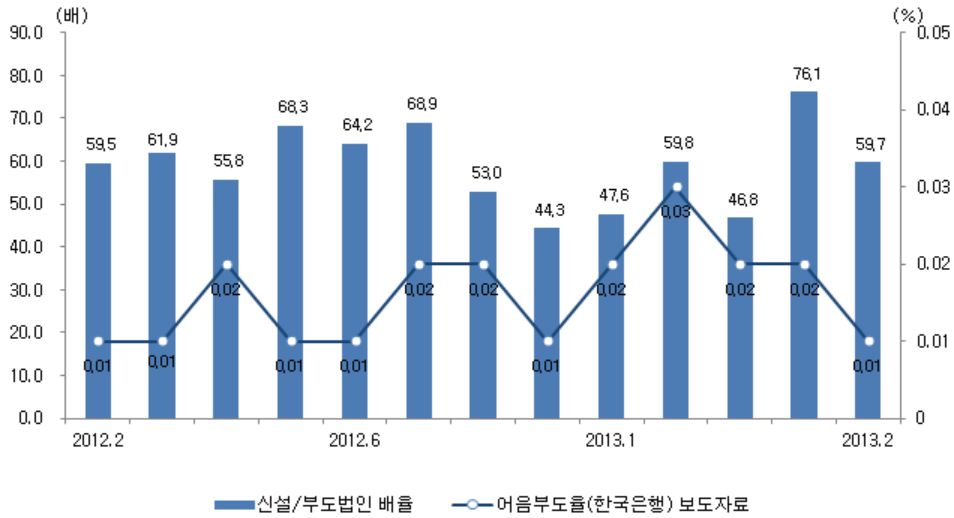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2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

-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59.7배로 전월(76.1배)보다 증가
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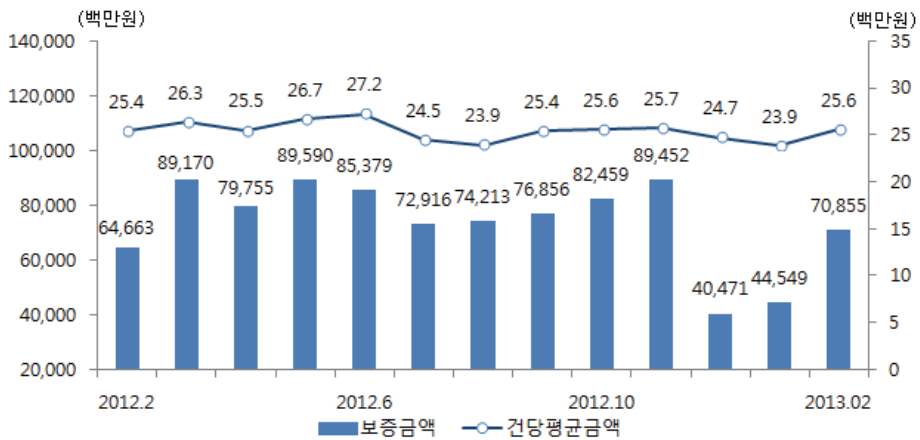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·동·향 |

서울의 2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증가

■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70,855백만원, 2,773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59.0%, 48.5%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7.3% 증가
-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9.6%, 9.0%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0.7% 증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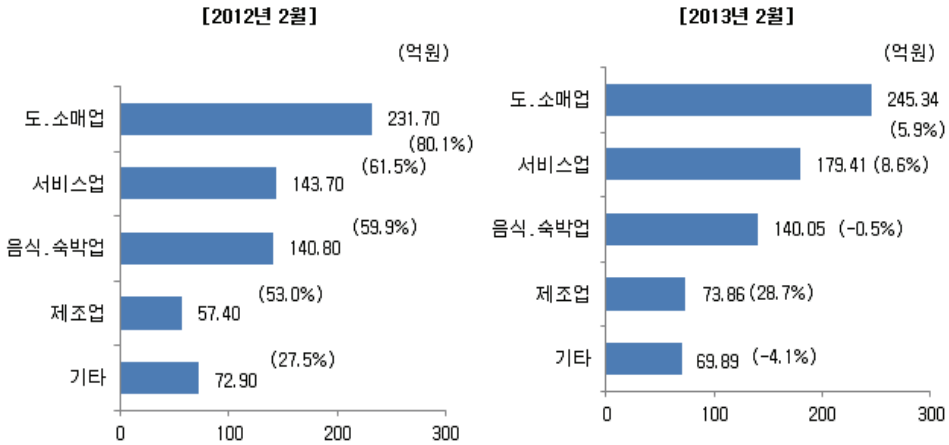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2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.6%로 전월(7.3%) 대비 1.0%p 증가한 반면, 도·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4.6%로 전월(31.4%) 대비 3.2%p 증가
-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.0%로 전월(8.3%)대비 0.3%p 감소하였으며 도·소매업종은 35.4%로 전월(33.0%)대비 2.4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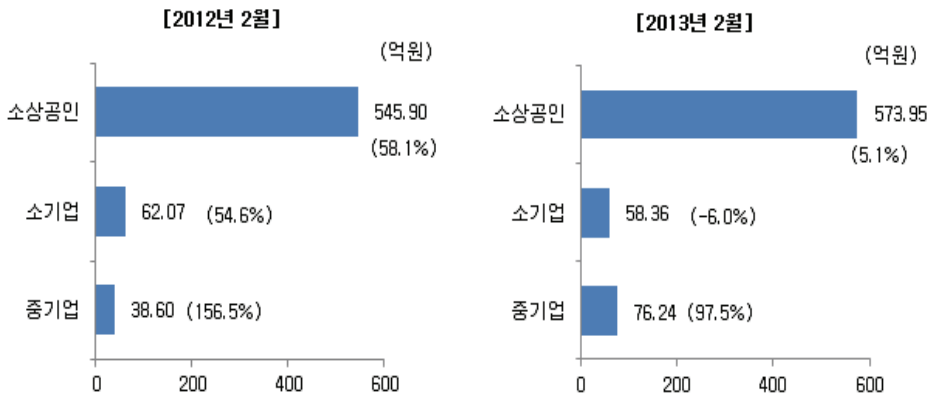
■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1.0%로 전월대비 0.4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2.5%로 전월대비 2.2%p 증가
-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.2%로 전월대비 0.1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2.6%로 전월대비 1.3%p 감소
-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0.8%로 전월대비 0.5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4.9%로 전월대비 0.9%p 감소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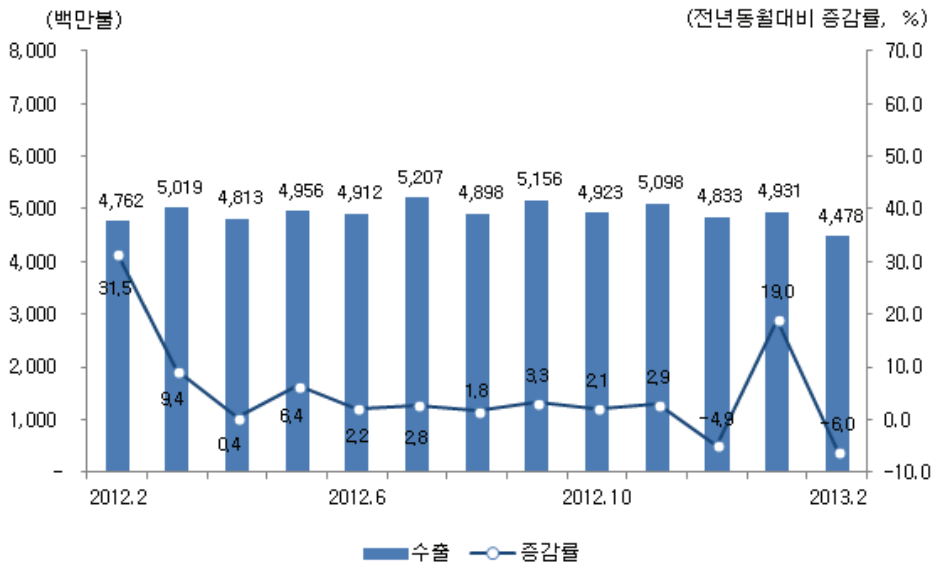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 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· 동 · 향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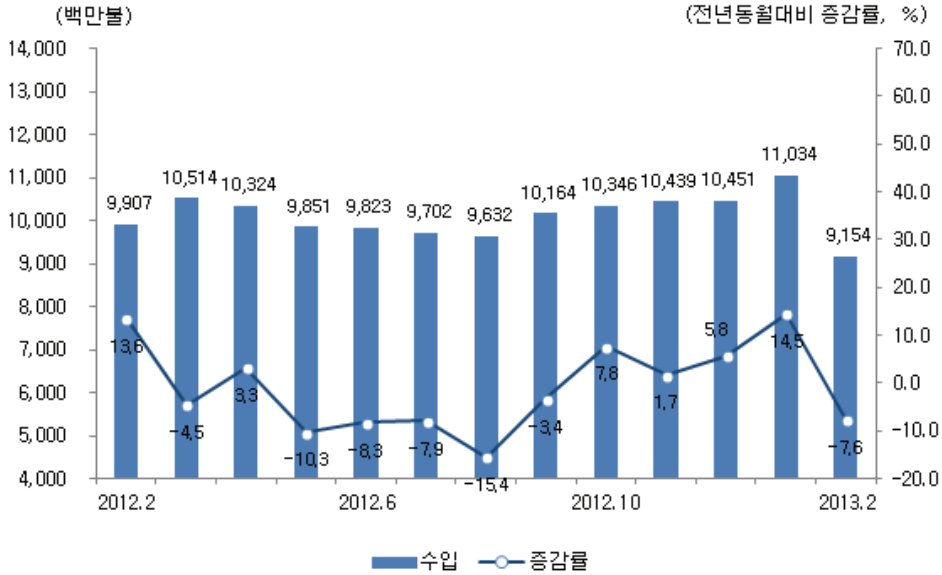
서울의 2월 수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

- 서울의 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
 - 서울의 수출은 44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.0% 감소하였고 수입은 91.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.6% 감소
 - 전국의 수출은 4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.6% 감소하였고 수입은 403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.6% 감소
-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 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자동차부품이 482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반도체, 합성수지, 편직물 등 순
 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89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컴퓨터, 의류, 자동차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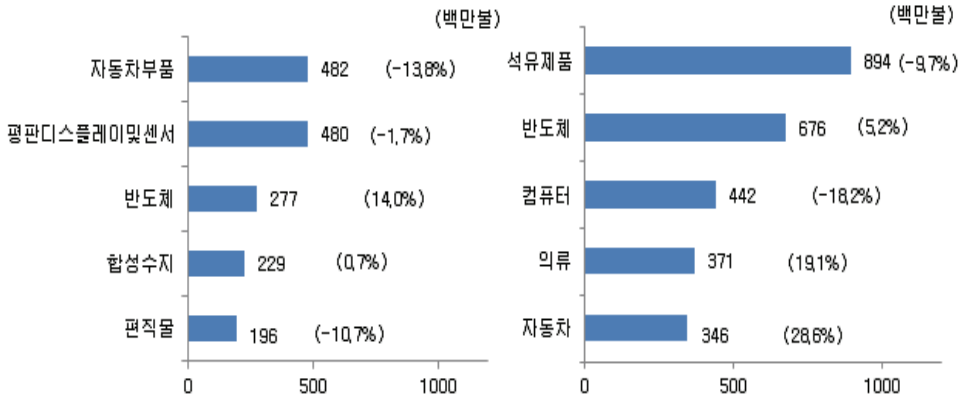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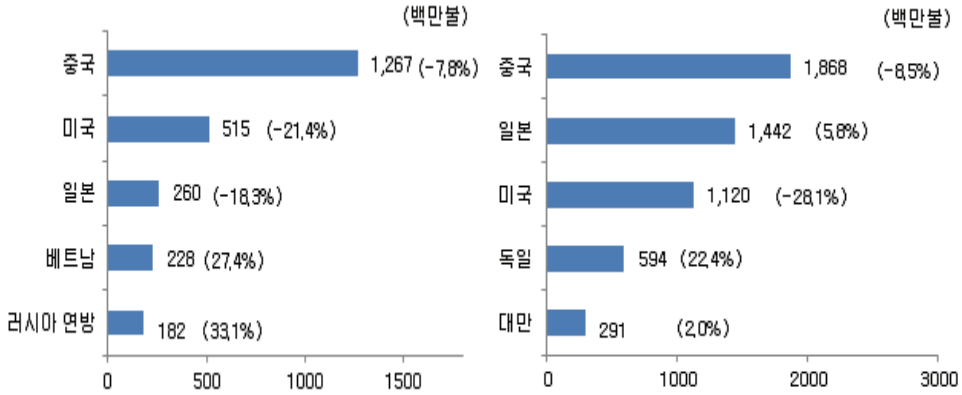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.8% 감소한 1,26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베트남, 러시아 연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8.5% 감소한 1,868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대만 순



주 : ()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